

##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권 지 은<sup>†</sup>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졸업

유 성 은<sup>‡</sup>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사별에 대처하는 개인차를 설명하는 모델인 이중과정모델(Stroebe & Schut, 1999; 2010)을 기반으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과 사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 개방형 설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과정모델과 반구조화 면담 및 개방형 설문 자료를 기반으로 예비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3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각 요인은 ‘사별에 대한 수용’,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긍정적 관점’으로 명명하였다. ‘사별에 대한 수용’은 사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은 고인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상태를 지속하려는 노력이다. ‘긍정적 관점’은 미래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정서를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은 이중과정모델의 상실지향대처와 ‘긍정적 관점’은 회복지향대처와 부합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사별에 대한 수용’ 요인에는 상실지향대처와 회복지향대처와 관련된 문항들이 함께 포함되었다.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내적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또한 본 척도의 수렴타당도, 예측타당도, 중분타당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가 청소년기 사별에 대한 대처를 측정하는데 적절하다는 것을 지지한다.

주요어 : 청소년 사별, 사별 후 대처척도, 이중과정모델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제10차 세계인지행동치료학술대회(WCCBT 2023)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권지은 / 현, 계명대 심리학과 박사후연구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유성은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E-mail : syou@chungbuk.ac.kr

 Copyright ©2024,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힘든 일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사별에 대처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발달 과업이 아니기에, 이러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청소년이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는지를 발달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임선영, 2014; Balk, 2011; Meichenbaum & Myers, 2016; Stroebe & Schut, 2005).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는 부모를 떠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Christ et al., 2002). 부모는 청소년이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안전하게 지지해 주는 대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청소년이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떠나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Sussillo, 2005). 청소년은 아직 자아가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출생 후부터 삶을 공유하였고, 안전하고 지지적인 대상이었던 부모나 형제자매의 죽음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발달 과정을 힘들게 하고, 애도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Devita-Raeburn, 2004; Robin & Omar, 2014).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충족하는데 있어 독립성과 대처기술을 더 가지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기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자기중심적 성향은 스스로를 고립시켜 성숙한 대처를 방해하기도 한다(Andriessen et al., 2018; Freeman, 2005). 또한 청소년들은 여전히 가족에 의존적인데, 부모의 상실로 현실적, 재정적 안정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한다(Hirooka et al., 2017).

사별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은 여러 심리적, 행동적 기능손상을 보이기도하고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기도 하

다(Harrison & Harrington, 2001; Hill et al., 2019; Melhem et al., 2011; Moor & de Graaf, 2016; Kaplow et al., 2018). 사별을 겪은 청소년들은 쉽게 산만해지고, 수면과 식습관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학업에 더 열중하거나 무심해지기도 하고, 진로준비 영역에서 또래에 비해 발달수준이 낮았다(Brent & Melhem, 2012). 또한 부모와 사별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깊은 슬픔, 짜증, 분노, 공허감과 부적응적 대인관계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Servaty-Seib, & Hayslip, 2003), 성인기까지 슬픔, 분노, 우울, PTSD, 약물남용, 자살행동 등의 정서적·행동적 부적응 반응이 지속되었다(Bonanno, 2004; Gray et al., 2011; Hill et al., 2019; Nickerson et al., 2011; Taku et al., 2008). 청소년은 또래와 다르게 보이지 않기 위해 사별로 인한 슬픔이나 어려움을 표현하기 보다는 부인하거나 회피하기도 하고, 분노나 짜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Schoen et al., 2004). 청소년은 자기중심적인 특성 때문에 죽음의 원인이 자신과 관계가 있다고 느끼거나 죽음을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해 무능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외로움, 혼란, 공포, 죄책감,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Stoppelbein & Greening, 2000). 이러한 사별의 부적응적 반응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5판 개정판(DSM-5-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에 지속적 비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가 공식진단명에 포함되었다(Prigerson et al., 2021).

이처럼 일부 청소년은 사별 경험 후에 임상적 개입이 요구되는 심리적 손상을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쳐 심각한 손상없이 새로운 삶에 적응한다(Kaplow et al., 2010; Keyes et al., 2014).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정의는 아직 합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리 증상이 더 적은 것으로 정의되기도 하고(Lin et al., 2004), 상실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Luthar et al., 2000; Masten, 2001). 더 나아가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에 외상 이전의 적응수준과 기능을 뛰어넘는 개인적 성장을 적응적 반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Tedeschi와 Calhoun(2004)는 단순히 외상 이전의 적응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는 변형과 기능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고 정의하였다. 실제로 사별을 겪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대처능력, 대인관계, 삶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 등에서 자신들이 성장했다고 하였다(Brewer & Sparkes, 2011; Hogan & Schmidt, 2002; Michael & Cooper, 2013). Luecken과 Roubinov(2012)는 사별에 어떻게 대처하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사별에 대한 적응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처과정을 이해하면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영역과 시점을 알아차리고, 사별 후의 긍정적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별에 대한 대처와 적응을 일반적인 대처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별은 죽음으로 인한 영구적인 상실이기에 사별 그 자체에 대한 대처이론이 필요하다(Lister et al., 2008). 애도에 대한 초기 이론들은 주로 사별로 인한 반응과 애도의 단계를 설명하였으나(Bowlby, 1980; Worden, 1991), 이후의 모델들인 이중과정모델(Stroebe & Schut, 1999), 지속유대이론(Silver et al., 1996), 의미재구성이론(Neimeyer, 1998) 등은 애도를 사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중 Stroebe와 Schut

(1999)는 이중과정모델(dual process model: DPM)에서 상실에 직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상실지향대처(loss orientation)’와 ‘회복지향대처(restoration orientation)’의 두 가지 대처를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간다고 설명하였다. ‘상실지향대처’는 상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며, 상실의 의미를 평가하고 고인이나 죽음 상황을 반추하며, 고인과의 유대를 갈망하고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는 것이다. ‘회복지향대처’는 상실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며 정체성의 재정립,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처 등이 포함된다(Stroebe & Schut, 2010). 지속유대(Silver et al., 1996)는 고인과의 계속되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의미재구성(Neimeyer, 1998)은 사별 이후의 적응에 있어 사별에 대한 의미 구성을 위한 인지적 노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중과정모델은 지속유대와 의미재구성 이론에서 강조하는 지속적인 고인과의 정서적 유대감과 의미재구성 개념을 두 가지 주요 대처 중 ‘상실지향대처’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별에 대한 주요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이중과정모델을 청소년 사별 후 대처적도를 개발하는데 주요 근거로 사용하였다.

사별, 특히 부모와의 사별은 자녀들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상실경험이다(Taku et al., 2008).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러한 애도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기에, 청소년기 동안 부모의 죽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Farella Guzzo & Gobbi, 2023). 이러한 연구 부족은 사별을 경험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표본 모집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적절한 측정도구의 부재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

사별 대처척도 중 이중과정모델(Stroebe & Schut, 1999)의 상실지향대처와 회복지향대처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이중 대처척도(The Dual Coping Inventory; Meij et al., 2008)와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의 일상생활 척도(Inventory of daily widowed life; Casera & Lund, 2007)가 있다. 하지만 이 척도들은 성인과 여성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청소년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별 대처척도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에 청소년의 사별 후 대처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일반 대처 방식척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Crunk et al., 2021). 그러나 사별은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대처척도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사별로 인한 적응에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하여 타당화하여 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한성렬 등, 2001). 국내에서 사별 후의 부적응적 반응이나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척도(장수지, 2015; 정형수, 2015; 황정윤 외, 2014)가 개발되기는 하였으나, 청소년의 사별 후 대처를 측정하는 척도 개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중과정모델을 기반으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청소년기본법(2020년 일부 개정)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상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초등학교 연령을 제외하고 13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문항구성 요인은 어떠한가? 이중과정모델을 기반으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는 상실지향대처와 회복지향대처의 2요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둘째,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 이론과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신뢰도, 타당도는 적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연구 1: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문항 개발

연구 1에서는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제작하고 내용타당도 검토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척도개발을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구성요인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기에 가족과 사별한 초기성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구조화 면담과 개방형 설문은 청소년 참여자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기에 가족과 사별한 대학생 이상의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가족 온라인커뮤니티와 5개 대학의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기에 부모나 형제자매와 사별 경험이 있으며, 사별한지 6개월이 지난 자를

표 1. 인구통계학적 및 사별관련 변인

변인	반구조화면담 N = 5 n	개방형질문 N = 27 n	1차설문 N = 204 n(%)	2차설문 N = 268 n(%)
성별				
남	1	4	32(15.7)	70(26.1)
여	4	23	172(84.3)	198(73.9)
나이				
13 - 18세	1	0	143(70.1)	77(28.7)
19 - 24세	4	22	61(29.9)	191(71.3)
25 - 29세	0	5	0	0
사별대상				
아버지	3	7	13(6.4)	80(29.9)
어머니	2	5	8(3.9)	40(14.9)
형제자매	0	5	9(4.4)	31(11.6)
할아버지	0	0	72(35.3)	66(24.6)
할머니	0	0	53(26.0)	37(13.8)
기타 친척	0	0	49(24.9)	14(5.2)
2인 이상 가족	0	10	-	-
사별기간				
1년 이내	0	0	50(24.5)	31(11.6)
1 - 2년	0	8	31(15.2)	65(24.3)
3 - 5년	2	5	70(34.3)	73(27.2)
5년 이상	3	14	53(26.0)	99(36.9)
사별원인				
질병	5	17	110(53.9)	158(59.0)
사고	0	8	27(13.2)	57(21.3)
자살	0	0	5(2.5)	9(3.4)
타살	0	0	2(1.0)	2(0.7)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	0	0	41(18.2)	30(11.2)
잘 알지 못함	0	2	23(10.2)	12(4.5)
사별예상여부				
전혀 예상하지 못함	1	14	111(54.4)	144(53.7)
어느 정도 또는 상당히 예상함	4	13	93(45.6)	124(46.3)
고인과의 친밀도				
전혀 친밀하지 않았다	-	-	14(18.2)	12(4.5)
친밀하지 않은 편이었다	-	-	18(8.8)	20(7.5)
그저 그랬다	-	-	48(23.5)	53(19.8)
친밀한 편이었다	-	-	56(27.5)	94(35.1)
매우 친밀했다	-	-	68(33.3)	89(33.2)

모집하였다. 사별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더 친밀했던 대상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반구조화 면담에 5명, 개방형 설문에 27명이 참여하였다. 반구조화 면담은 연구설명서와 연구참여동의서, 질문을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에 화상을 통해 진행하였고 녹음은 하지 않았다. 개방형 설문은 연구참여동의와 답변을 온라인을 통해 받았다. 다음으로 척도의 문항 개발 및 요인구조 확인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가족과 사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13-24세)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관을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총 20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별관련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았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의 경우 본인의 연구참여동의와 함께 보호자의 연구참여동의를 받았다.

#### 측정변인 및 도구

##### 반구조화된 면담과 개방형 설문

반구조화된 면담과 개방형 설문은 ‘사별 후 어려움에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 [생각, 행동, 감정, 관계 등]은 무엇입니까?’, ‘사별 후 어려움에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생각, 행동, 감정, 관계 등]은 무엇입니까?’ 라는 동일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 사별 관련 문항

사별대상(부, 모,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외 친척), 기간(1년 이내, 1 - 2년, 3 - 5년, 5년 이상), 사별원인(질병, 사고, 자살, 타살,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 잘 알지 못함), 사

별 예측여부(전혀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어느 정도 또는 상당히 예상된 죽음이었다)는 해당사항에 체크하도록 하였고, 고인과의 친밀도는 5점 리커트척도(1점: 전혀 친밀하지 않았다, 5점: 매우 친밀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청소년 사별 후 대처 척도 예비문항

문헌연구, 반구조화 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구성하고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 예비문항 98문항을 사용하였다. ‘사별은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이며, 가까운 가족과의 사별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별 후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라는 지시문을 제시하고 각 문항들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아니다, 3점: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 분석방법

SPSS ver.29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비문항의 양호도 검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간 상관분석을 하였다. KMO 지수(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요인회전은 오블리민 회전방식을 적용하였다. 고유값(eigenvalue), 스크리도표, 평행분석, 요인적재값, 해석 가능성을 바탕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였고, 문항

제거시 내적일치도가 전체 내적일치도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결 과

### 예비문항구성 및 내용타당도 검토

반구조화 면담, 개방형 설문, 기존 사별 관련 척도 문항 참고 등을 통해 총 106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상실지향적 대처는 50 문항, 회복지향적 대처는 56문항이 포함되었다.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 6명에게 예비문항의 적절성과 명료성 평가하도록 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평가를 위해 ‘문항이 척도의 목적, 구성요소와 부합되는가?’, ‘문항이 명료하게 이해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점 리커트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외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였다. 적절성과 명료성 평가에서 평균 2점 이하의 평정을 받거나 내용이 중복된다고 보고된 8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남은 98개 문항에서 어색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수정한 후에 대학생 2인, 중고등학생 4인, 중학교 교사 1인에게 청소년이 이해하고 응답하기에 적절한지 검토를 받았다. 검토 결과 청소년에게는 ‘묘소’보다는 ‘산소’가 좀 더 익숙한 표현이라는 의견과 ‘무단결석’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해당표현을 수정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사별’의 뜻을 모를 수도 있다는 교사의 조언에 따라 사별에 대한 뜻을 척도 지시문에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 문항 중 문항 양호도 검증에서 정규성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왜도 절대값 2 이상, 첨도 절대값 7 이상(Curran et al., 1996)인 5개 문항을 삭제하였고, 총점과 문항 간 상관계수가 .3 이하(탁진국, 2007)인 38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예비문항 98문항 중 총 43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남은 55문항에 대해 요인분석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KMO 지수는 .875 였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chi^2 = 5032.33$ ,  $df = 1128$ ,  $p < .001$ )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요인의 수 검증 결과, 스크리도표에서는 3 - 4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행분석에서는 표본자료의 고유값이 무선자료의 고유값보다 더 큰 개수는 6개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근거가 된 이론인 이중과정모델에서는 두 개의 대처 요인을 제시하고 있어 2요인 구조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에 가능한 요인의 수를 2 - 6개로 지정하며 요인 모델별로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5요인이나 6요인으로 요인수를 지정하여 분석한 경우,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 내용이 혼재되고, 속한 문항수가 3개 이하로 나타나는 요인도 있어 적절하지 않았다. 3요인과 4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해석 가능한 요인으로 문항이 묶여서 추출되었다. 그러나 4요인 구조 중 ‘독서를 한다, 여행을 한다, 산책을 한다, 글이나 일기를 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은 개인의 취향이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측정도구의 한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다.

사별 및 상실에 대한 대처척도를 개발한 연구 (Crunk et al., 2021)에서도 이중과정모델 중 회복지향적 대처에 부합하는 취미, 오락, 신체활동 등의 내용이 기초문항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최종문항에서는 제외되었다. 즉, 이런 내용의 문항이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척도 구성요소로 구현되기는 어려운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이중과정모델에 따라 2요인으로 요인의 수를 지정하여 분석한 경우, 상실지향대처와 회복지향대처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고인과의 관계’가 주내용인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나머지 상실지향대처와 회복지향대처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3요인 구조가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채택하였다(표 2).

각 요인별로 3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장승민, 2015; 탁진국, 2007)에 따라 .40 이상의 요인적재값을 보인 문항 중 각 요인별로 대표성 있는 문항을 5문항 이상씩 선별하였다. 이 때 문항이 이론적 개념을 잘 대표하는지를 주요한 선별 기준으로 삼았고 문항의 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요인 1에는 사별과 사별 이후의 변화를 수용하고 일상을 유지하며 사별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과 관련된 문항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이에 요인 1을 ‘사별에 대한 수용’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고인과의 정서적인 유대감과 관련된 문항들로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긍정적 관점’이라 명명하였다(표 2).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83이었고, 하위요인인 ‘사별에

대한 수용’은 .81,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은 .74, ‘긍정적 관점’은 .83였다. 문항제거시 높아지는 문항이 없어 전체적으로 문항 구성이 양호함을 나타냈다. 또한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사별에 대한 수용’과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의 상관계수  $r = .19(p < .01)$ , ‘사별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 관점’의 상관계수  $r = .42(p < .001)$ ,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과 ‘긍정적 관점’의 상관계수  $r = .23(p < .001)$ 였다.

## 연구 2: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 방법

### 연구대상 및 절차

2개의 전문설문조사회사와 3개 지역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가족과 사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집대상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그 외 가족과 사별한 13 - 24세 청소년으로, 사별한지 6개월이 지난 자로 하였다. 총 26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1). 또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총 25명이 재검사를 위한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중 남성이 4명(16%), 여성이 21명(84%)였고, 연령 범위는 20 - 24세



표 2.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 예비문항의 요인적재값 (55문항)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b>92. 사별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b>	<b>.758</b>	-.126	.175
<b>70.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한다.</b>	<b>.661</b>	-.136	-.029
98.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627	.028	-.139
<b>97. 고인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노력한다.</b>	<b>.619</b>	.042	.033
87. 사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10	.016	-.002
80. 현재 내가 원하는 것에 충실한다(예, 원하는 물건 사기, 먹고 싶은 음식먹기 등).	.603	-.076	-.080
<b>83. 사별 후 달라진 행동들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b>	<b>.560</b>	.100	.130
81.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555	.004	-.170
<b>5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b>	<b>.551</b>	.032	-.038
79.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527	-.031	-.284
86.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87	.278	.004
<b>78. 나는 사별의 고통을 잘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다.</b>	<b>.484</b>	-.041	-.112
71. 취미활동을 한다.	.462	-.078	-.181
91. 사별로 변화된 환경에서 지금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41	.238	.063
89.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437	.107	-.203
<b>63. 사별 전과 다름없이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b>	<b>.408</b>	.112	-.097
57. 현재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한다.	.355	.141	-.278
45.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8	.175	-.123
58. 사별 후 달라진 감정들(예, 슬픔, 분노, 상실감 등)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44	.263	.027
94. 건강관리를 한다.	.329	.059	-.269
49. 독서를 한다.	.309	.063	-.233
62.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308	.226	-.205
24. 재미있는 영상이나 영화를 본다.	.302	-.055	-.211
73. 산책을 한다.	.293	.106	-.198
34. 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274	.166	-.191
28. 바쁘게 지내거나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250	.208	-.235
30. 사별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생각한다.	-.037	.636	.007
<b>60.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때, 고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본다.</b>	-.084	<b>.631</b>	.014
<b>33.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과 고인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나눈다.</b>	-.065	<b>.621</b>	-.080
29. 친구에게 내 사별과 관련된 힘든 마음을 이야기한다.	-.167	.614	-.110
<b>68. 고인을 그리워하며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한다.</b>	.056	<b>.609</b>	.147
<b>54. 고인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에 간다.</b>	.092	<b>.602</b>	.088
<b>17.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한다.</b>	-.057	<b>.577</b>	-.064
85. 산소나 납골당 등에 방문하여 고인을 추모한다.	.120	.529	.072
96. 누군가에게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082	.526	.002
9. 고인이 곁에 없지만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	-.205	.488	-.217
19. 사별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한다.	.163	.449	-.039
59. 고인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203	.445	.037

표 2.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 예비문항의 요인적재값 (55문항) (계속)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7. 고인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046	.290	-.099
93. 글이나 일기를 쓴다.	.188	.271	-.042
25.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낸다.	-.061	.236	-.232
<b>10.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b>	-.099	-.059	<b>-.791</b>
<b>8.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음을 생각한다.</b>	.031	-.029	<b>-.709</b>
<b>12.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잘 하고 있다고 느낀다.</b>	-.015	.109	<b>-.676</b>
<b>6.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b>	-.057	.080	<b>-.651</b>
11. 남은 가족들과 더 친밀해졌다고 생각한다.	.022	.056	-.576
<b>5.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b>	.253	-.036	<b>-.557</b>
46. 지금 상황에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284	.051	-.481
4.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142	-.055	-.475
65. 여행을 간다.	.063	.143	-.390
36. 새로운 것을 배운다.	.250	.038	-.388
66.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201	.146	-.378
18. 나에게서 이 어려움을 감당할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271	-.134	-.352
39. 학업에 집중한다.	.318	-.061	-.347
88.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063	.230	-.325
Eigenvalue	13.03	3.40	1.99
설명된 총분산(%)	23.07	6.18	3.62

주1. 요인1: 사별에 대한 수용, 요인2: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요인3: 긍정적 관점

주2. 최종선정된 문항은 진하게 표시.

( $M = 22.6, SD = 1.8$ )였다.

### 설문 측정변인 및 도구

#### 사별 관련 문항

1차 설문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사별대상, 사별원인, 사별 예측여부, 고인과의 친밀도를 측정하였다.

####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

본 연구에서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처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사별에 대한 수용(7문항),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5문항), 긍정적 관점(5문항)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본인과 일치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아니다, 3점: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며, 총점 범위는 0-51점이다. 본 연구에서 총점의 내적일치도는 .87, ‘사별에 대한 수용’은 .81, ‘고

인과의 관계 재정립'은 .78, '긍정적 관점'은 .79 였다.

**지속비애척도**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지속비애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별 후 복합비애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Prigerson 등(2009)이 개발한 지속비애 척도(Prolong Grief Disorder Scale: PG13)를 강현숙과 이동훈(201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2였다.

**외상 후 성장 척도**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사용하였다.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척도는 5요인, 21문항이지만 송승훈 외(2009)의 연구에서는 4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요인은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이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0점: 경험하지 못함, 5점: 매우 많이 경험)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4였다.

**애도에 대한 의미 재구성 척도**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애도에 대한 의미 재구성 척도(Grief and Meaning Reconstruction Inventory: GMRI)를 사용하였다. Grillies(2005)가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고, 최선재와 안현의(2013)가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3였다.

**지속유대 척도**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Field 등(2003)이 개발한 지속유대척도(Continuing Bonds Scale: CB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인이 된 애착 인물과의 심리적 유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원척도는 11문항이나 한국판(김계양 외, 2016)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 평정은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0이었다.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수렴 타당도와 증분 타당도 검증을 위해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하고 김여진(2006)이 재구성한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측정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4개 하위영역은 문제지향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이다. 문제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여 그 원인 자체를 변화시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이며, 정서완화적 대처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으로 인해서 나타난 감정적 위협을 조절 또는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소망적 사고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문제를 대처하는 행동이며,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총점은 .93, 각 하위척도는 .65 - .78이었다.

**분석방법**

SPSS ver.29와 AMOS ver.26을 사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고, 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해  $\chi^2$ ,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GFI(Goodness-of Fit-Index), NFI(Normed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산출하였다. 본 척도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지속유대척도,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척도와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지속

표 3.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기술통계

문항	1차 설문(N = 204)				2차 설문(N = 268)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요인1: 사별에 대한 수용(Cronbach's $\alpha = .81, .81$ )								
문항 92	1.97	1.03	-0.51	-1.00	1.81	0.85	-0.14	-0.77
문항 70	2.01	1.01	-0.63	-0.76	1.99	0.88	-0.53	-0.47
문항 97	1.74	1.05	-0.18	-1.23	1.93	0.95	-0.52	-0.69
문항 83	1.56	1.12	-0.03	-1.36	1.81	0.93	-0.34	-0.75
문항 55	1.91	1.07	-0.48	-1.08	1.88	0.97	-0.53	-0.67
문항 78	1.51	1.14	0.01	-1.42	1.71	0.97	-0.27	-0.91
문항 63	1.76	1.14	-0.33	-1.32	1.89	0.96	-0.44	-0.81
요인2: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Cronbach's $\alpha = .74, .78$ )								
문항 60	0.97	1.06	0.78	-0.67	1.45	1.01	-0.02	-1.11
문항 33	1.15	1.04	0.51	-0.89	1.65	1.00	-0.15	-1.05
문항 68	1.32	0.98	0.36	-0.84	1.78	0.94	-0.2	-0.96
문항 54	0.85	0.92	0.89	-0.05	1.42	1.00	0.15	-1.04
문항 17	0.83	0.84	0.98	0.65	1.35	1.09	0.17	-1.26
요인3: 긍정적 관점(Cronbach's $\alpha = .83, .79$ )								
문항 10	1.65	1.08	-0.13	-1.27	1.68	1.02	-0.16	-1.11
문항 8	1.94	0.99	-0.46	-0.93	1.90	1.03	-0.52	-0.91
문항 12	1.52	1.01	0.08	-1.09	1.88	0.93	-0.36	-0.81
문항 6	1.95	0.91	-0.37	-0.86	1.94	0.91	-0.36	-0.84
문항 5	2.00	0.92	-0.46	-0.81	1.98	0.89	-0.59	-0.39
총점(Cronbach's $\alpha = .83, .87$ )								
	26.65	8.94	-0.08	0.21	30.06	9.31	-0.70	0.51

주.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각 요인 첫 번째 문항 줄에 보고함(1차 설문, 2차 설문).

비애와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가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척도와 차별적으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척도와 사별 후 대처척도를 단계별로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확인적 요인분석

3요인 구조의 모형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TLI = .901, CFI = .916, GFI = .901, NFI = .851, SRMR = .069, RMSEA = .064(90% CI [.05,

표 4.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 모형적합도 지수

	$\chi^2$	df	TLI	CFI	GFI	NFI	RMSEA(90% CI)	SRMR
3요인	243.09***	116	.901	.916	.901	.852	.064(.053 - .075)	.069

주.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GFI = Goodness-of Fit-Index, NFI = Normed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SRMR =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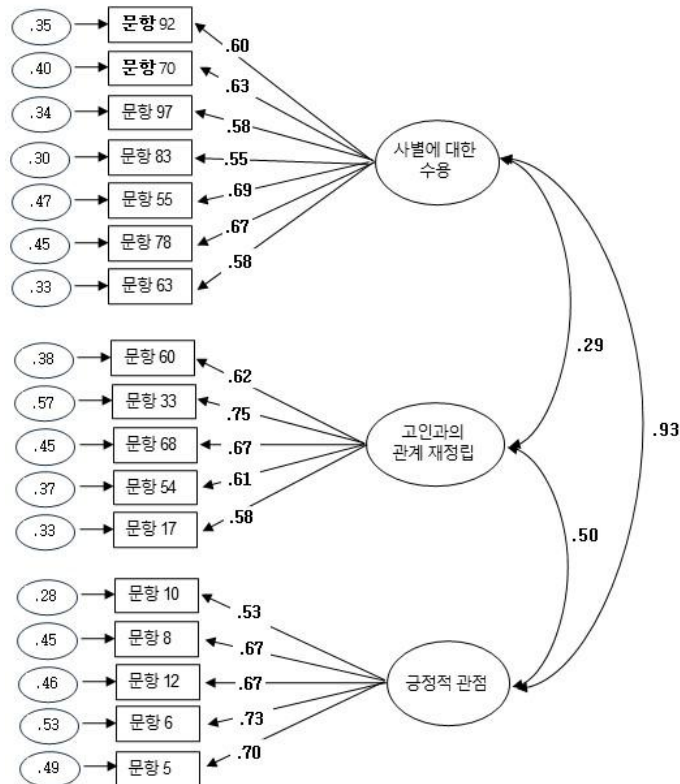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 요인구조

07))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 요인구조에서 표준화계수는 모두 .50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표 4, 그림 1).

#### 신뢰도 검증: 내적일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연구 2에서 수집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 총점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하위요인인 '사별에 대한 수용'의 내적일치도는 .81,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은 .78, 긍정적 관점은 .79 였다(표 3).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의 하위요인인 사별에 대한 수용,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긍정적 관점의 검사-재검사 간의 상관계수는 각  $r = .68, .70, .85$ 로 나타나 척도의 시간적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 타당도 검증

##### 수렴타당도 검증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 스트레스대처척도와 지속유대척도,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 사별 후 대처 척도는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 척도와 .31 - .46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하위 요인 중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이 상대적으로 높은 .35 - .53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은 지속유대와 .60의 중등도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긍정적 관점'은 의미재구성과 .50의 정적 상관을 보여 각 하위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냈다(표 5).

##### 준거타당도 검증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별의 부적응적 결과인 지속비애와 적응적 결과인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지속비애는 '사별에 대한 수용', '긍정적 관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외상 후 성장과는 '사별에 대한 수용',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긍정적 관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표 5).

회귀분석 결과, 지속비애에 대해서는 '사별에 대한 수용',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긍정적 관점'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고, 외상 후 성장에 대해서는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과 '긍정적 관점'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표 6). 즉,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요인은 사별의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결과 모두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이 있었다.

##### 중분타당도 검증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가 가지는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1단계에서 일반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2단계에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는 지속비애와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유의미한 증분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 연령별, 사별대상별 사별 후 대처차이 검증

연구 1의 표본과 연구 2의 표본이 연령 및 사별대상의 분포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구 1 표본에서는 13 - 18세 집단이 약 70%, 부, 모, 형제와 사별한 집단이 약 15%였고, 연구 2 표본에서는 각각 약 29%, 56%였다. 따라서 연령

표 5.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와 관련 척도의 상관

	1. 사별 후 대처척도 총점	2. 사별에 대한 수용	3. 고인과의 관계 재점립	4. 긍정적 관점	5. 지속적 비애	6. 외상 후 성장	7. 문제 중심 대처	8. 사회적 지지 추구	9. 정서 완화	10. 소망적 사고	11. 지속적 유대	12. 의미 재구성
2	.84**											
3	.64**	.21**										
4	.88**	.74**	.38**									
5	-.67**	-.40**	.31**	-.28**								
6	.46**	.25**	.45**	.41**	.13*							
7	.46**	.28**	.42**	.41**	.11	.52**						
8	.42**	.19**	.53**	.30**	.19**	.45**	.72**					
9	.31**	.17**	.35**	.24**	.25**	.39**	.72**	.62**				
10	.34**	.21**	.37**	.25**	.21**	.41**	.77**	.61**	.76**			
11	.27**	-.06	.60**	.16**	.45**	.40**	.35**	.33**	.35**	.36**		
12	.57**	.42**	.46**	.50**	.00	.51**	.58**	.48**	.42**	.49**	.46**	
평균	30.06	13.02	7.66	9.38	27.35	42.74	21.35	17.21	20.83	22.16	32.22	94.05
표준 편차	9.31	4.46	3.71	3.54	10.07	16.87	5.83	5.87	4.92	5.74	9.04	14.28
예도	-0.70	-0.45	-0.14	-0.50	0.49	-0.10	-0.48	-0.19	-0.48	-0.42	-0.41	-0.31
침도	0.51	0.04	-0.84	-0.15	0.86	-0.70	-0.19	-0.77	0.26	-0.08	-0.12	0.10

\*  $p < .05$  (양측), \*\*  $p < .01$  (양측)

표 6. 청소년 사별 후 대처 척도의 준거 타당도 검증: 지속비애 및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	B	S.E.	$\beta$	t	adjR <sup>2</sup>	F
지속비애						
사별에 대한 수용	-.79	.17	-.35	-4.65**	.33	43.90**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1.23	.15	.45	8.29**		
긍정적 관점	-.55	.23	-.19	-2.40*		
외상 후 성장						
사별에 대한 수용	-.22	.30	-.06	-.75	.27	32.72**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1.54	.26	.34	5.93**		
긍정적 관점	1.55	.40	.32	3.88**		

\*  $p < .05$ . \*\*  $p < .001$ .

표 7. 지속비애 및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청소년 사별 후 대처 척도의 증분타당도 검증

단계	요인	B	S.E.	$\beta$	t	adjR <sup>2</sup>	F	$\Delta_{adj}R^2$	$\Delta F$
지속비애									
1	문제중심	-.55	.19	-.32	-2.94**	.08	6.88***		
	사회적 지지추구	.29	.15	.17	1.94				
	정서완화	.53	.20	.26	2.68**				
	소망적 사고	.27	.18	.15	1.47				
2	사별에 대한 수용	-.83	.17	-.37	-5.02***	.37	25.28***	.29	40.99***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1.07	.16	.39	6.53***				
	긍정적 관점	-.52	.23	-.18	-2.29				
외상 후 성장									
1	문제중심	1.13	.28	.39	4.07**	.27	25.67***		
	사회적 지지추구	.49	.22	.17	2.21				
	정서완화	-.10	.30	-.03	-.32				
	소망적 사고	.10	.27	.03	.36				
2	사별에 대한 수용	-.25	.28	-.07	-.88	.36	21.10***	.08	11.27***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96	.28	.21	3.45***				
	긍정적 관점	1.14	.39	.24	2.93**				

\*\*  $p < .01$ . \*\*\*  $p < .001$ .



표 8. 연령 및 사별대상에 따른 사별 후 대처 차이

요인	집단	<i>n</i>	<i>M</i>	<i>SD</i>	<i>t</i>	<i>p</i>
연령 집단별 비교						
사별에 대한 수용	13 - 18세	77	12.68	5.49	-0.68	.49
	19 - 24세	191	13.15	3.97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13 - 18세	77	5.67	3.51	-5.89	< .001
	19 - 24세	191	8.45	3.48		
긍정적 관점	13 - 18세	77	9.11	4.42	.38	.25
	19 - 24세	191	9.48	3.12		
사별 대상별 비교						
사별에 대한 수용	부/모/형제	151	12.72	4.24	-1.25	.21
	조부모/그 외	117	13.41	4.73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부/모/형제	151	8.47	3.60	4.21	< .001
	조부모/그 외	117	6.61	3.60		
긍정적 관점	부/모/형제	151	9.38	3.38	.38	.97
	조부모/그 외	117	9.37	3.75		

및 사별대상에 따라 사별 후 대처의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2 자료에서 연령에 따라 13 - 18세 집단과 19 - 24세 집단으로 나누고, 사별대상에 따라 부/모/형제와 사별한 집단과 그 외 가족과 사별한 집단으로 나누어 사별 후 대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19-24세 집단( $t = -5.89, p < .001$ )과 부/모/형제와 사별한 집단( $t = 4.21, p < .001$ )에서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8).

### 논 의

본 연구는 사별에 대한 이중과정모델(Stroebe & Schut, 1999; 2010)을 기반으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는 상실지향 대처와 회복지향대처의 2요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연구 결과 3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개발되었다. 하위요인은 각각 ‘사별에 대한 수용’,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긍정적 관점’으로 명명하였고,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척도에서는 사별에 대한 수용이 첫 번째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사별에 대한 수용에는 ‘사별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고인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노력한다’ 등의 사별에 대해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상실지향대처 문항과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한다’, ‘사별 전과 다름

없이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등의 사별 이전과 유사한 삶을 유지하는 회복지향대처 문항이 모두 포함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며 복구가 불가능한 외상적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견디며 적응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된 환경에 대해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별 후의 긍정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인 의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외상적 사건으로 인한 변화를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Taku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사별에 대한 수용이 일상을 유지하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문항들과 함께 묶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소년에게 사별에 대한 수용은 단순히 인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별 이전의 일상을 이어가는 회복지향대처와 함께 어우러져 발생하는 애도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요인은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으로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과 고인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나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때, 고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별로 인한 슬픔과 비애는 익숙해지거나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현실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고인을 자신의 삶에 포함시킨다(Holland et al., 2010). 고인과의 유대관계를 포기하거나, 지속하거나, 재정립하는 것은 이중과정모델에서 상실지향대처에 속하는 주요 내용이며(Stroebe & Schut, 1999), 고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상실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인 지속유대वाद 유사한 개념이다(Silverman et al., 1996). 지속유대 개념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사별 및

상실에 대한 대처척도(The Coping Assessment for Bereavement and Loss Experiences, Crunk et al., 2021)와 사별에 대한 2축모델 질문지(Two-Track Bereavement Questionnaire; Rubin et al., 2013)에도 하위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고인과의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와 관계 재정립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별 후 적응에도 중요한 대처기제를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령과 사별 대상에 따라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고인과 가까운 가족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서 초기 성인 시기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대처를 더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청소년기 사별에 대한 대처에서 고인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인과의 관계의 질이나 친밀도가 높은 경우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과 관련한 개입이 청소년의 사별 대처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개입 시 이를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하위요인은 긍정적 관점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척도에서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신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본 척도의 문항들은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춘 이중과정모델의 회복지향대처와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중과정모델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사별에 잘 대처하는데 필수적 요인이며(Stroebe & Schut, 2010), 사별 대처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Stroebe et al., 2007)에서도 긍정적 재평가, 의미만들기, 정서 조절이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사별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Wolchik et al., 2006)와 청소년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리뷰연구에서도 낙관성이나 희망 등의 긍정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즉, 삶의 위기에 대한 적응적 해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통제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Hogan & Greenfield, 1991)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 자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별 후 대처적도에서 ‘긍정적 관점’이 주요 요인으로 구성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사별 대처의 주요 요인으로 추출된 3요인 중 사별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 관점 요인 간 상관이 .74 - .93으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 사별 대처에 있어 이 요인들의 관계성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사별에 대한 수용에는 상실지향대처와 회복지향대처 문항이 혼재되어 포함되어 있고 주로 사별 이후 현재 경험하는 고통과 변화에 대해 직면하고 수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반면 긍정적 관점 요인에는 회복지향대처 중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지 문항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요인분석결과에서 요인적재값을 보면 이 두 요인 간 중복 부하되는 문항이 없다. 그럼에도 두 요인 간 .70 이상의 높은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통계분석결과 가능하다고 지지된 2-6요인에 대해 요인 수 지정을 변경해가면서 문항이 어떻게 다르게 묶이는지 관찰하였다. 2요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문항들과 나머지 문항들이 분리되어 묶였다. 이는 이중대처이론 관점에서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을 상실대처의 일부로 개념화한 한 것

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별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 관점을 하나의 요인으로 합치는 것보다 독립된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사별 후 대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Cohen et al., 2006; Spuij et al., 2015)도 사별이나 죽음에 직면하기, 애도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부적응적인 사별 후 반응에 대처하기, 사별 경험에 대해 의미재구성을 하기, 자신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등의 내용이 섹션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사별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 관점을 독립된 요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도 유용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사별대처의 경우 상실지향 대 회복지향의 이분법적 개념화보다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이 사별 대처에서 독립적인 요인으로 기능하고 이 외의 상실지향대처와 회복지향대처가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예측타당도와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중 의미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척도의 예측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별에 대한 부적응적, 적응적인 결과인 지속비애와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하였는데, 하위요인 중 사별에 대한 수용은 낮은 지속비애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외상 후 성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사별에 대해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은 사별로 인한 부적응적인 반응을 줄이는데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용이 직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별에 대한 수용은 외상 후 성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

는 변인은 아니었지만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재구성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Balk(1996)는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은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다가 점차적으로 그 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즉, 사별에 대한 수용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의미재구성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요인은 지속비애와 외상 후 성장 모두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는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 요인이 사별 이후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갖는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유사한 개념인 지속유대도 사별 후의 적응적 결과와 부적응적 결과와 모두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Currier et al., 2012; Field & Filanosky, 2010; Root & Exline, 2014). 여러 연구에서 지속유대는 애도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상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상실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처능력을 키워 주고 위안을 제공하며, 삶에 의미를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pp & O'Brien, 2022; Stroebe et al., 2010). 그러나 Boelen 외(2006)의 연구에서는 지속유대가 높은 사람들이 상실 후 16 - 21개월이 지난 후에 더 심한 슬픔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Currier 외(2012)는 지속유대 자체가 사별후 적응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은 애착대상과의 사별이 매우 고통스러움을 보여줌과 함께 고인과의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장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별비애와 외상 후 성장은 직선적인 부적 관계가 아니며, 어느 정도의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어야 개인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Eisma et al., 2019). 사별한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이 상실에서 의미를 창조하고, 사별 후의 삶에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Hansen et al., 2016; Hirooka et al., 2017; Packman et al., 2006)는 고인과의 관계 재정립을 잘 다루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별에 대한 대처척도가 기존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척도와 차별적으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척도와 사별 후 대처척도를 단계별로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 사별 후 대처척도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척도와 별개로 유의미한 증분타당도를 나타냈다. 즉, 사별이라는 특정 외상경험에 대한 대처를 측정하는 본 척도가 추후 애도 및 사별관련 연구에서 의미있게 사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으로 사별 후 대처가 지속비애와 외상 후 성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사별 후의 적응이 개인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 애도 증상이 더 적거나(Lin et al., 2004), 상실의 어려움에도 잘 기능하는 것(Luthar et al., 2000; Masten, 2001)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외상 후 성장은 사별을 경험한 모든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또한 부적응적인 증상의 감소가 곧 외상 후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상 후 성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어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Boals & Schuettler, 2011; Currier et al., 2012). 즉, 본 연구의 결과도 적응을 넘어서 개인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별 후 대처 외에 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가족과 사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었다. 문항분석을 위한 표집 인원수에 대한 여러 기준 중 본 연구에서는 문항 수의 5 - 10배 정도의 참여자 또는 최소 200명이 필요하다는 기준(탁진국, 2007)에 근거하여 참여자 수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시 17문항, 3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의 측정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37개 모수의 10배인 370명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 또한 사별연구에서는 사별대상, 사별기간, 사별 당시 연령, 사별원인 등의 사별 관련 변인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별 관련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기에는 본 연구의 표본 크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표본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소한의 참여자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연구 1과 연구 2 표본에서 연령과 사별원인에 대한 구성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연령 비율 또는 사별 관련 변인을 고려하여 표본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론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문항을 선별하는 과정과 요인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예비문항을 기반으로 대규모 청소년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문항과 요인에 대한 반복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사별에 특징적인 대처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사별관련 척도는 주로 사별 후의 결과, 특히 부적응적 증상을 측정하는 것이 많았고, 사별 과정에서 중요한 사별에 대한 대처를 측정하는 도구는 많지 않았다. 사별 후의 삶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측정하는 것은 사별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별 후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불어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별에 대한 반응 및 대처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척도는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애도과정을 이해하고 애도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사별 후 적응을 위한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사별에 대해 직면하고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고인과의 유대감이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사별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 자기개념을 포함한 긍정적 관점이 강점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면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애도관련 척도들은 주로 외국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처반응은 외상의 특성,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번안된 척도는 한계가 있다(한성열 외, 2001). 본 연구에서는 사별을 경험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제 애도과정 경험을 근거로 사별 후 대처를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애도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본 척도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제 애도경험을 반영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본 척도가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 연구와 임상적 개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현숙, 이동훈 (2017). 한국판 지속비에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1027-1052.  
<https://1027-1052.10.23844/kjcp.2017.11.29.4.1027>
- 김계양, 박종원, 김완석 (2016). 한국판 지속 유대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22(2), 263-283.  
<https://10.20406/KJCS.2016.22.2.263>
- 김여진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https://www.riss.kr/link?id=T10501748>
- 송승훈, 김교현, 이홍석, 박준호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https://doi.org/10.17315/kjhp.2009.14.1.012>
- 임선영 (2014). 관계상실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후 성장 촉진 프로그램의 효과. *인지행동치료*, 14(3), 339-358.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870>
- 장수지 (2015). 노년기 사별 후 성장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사회복지학*, 67(2), 61-84.  
<https://10.20970/KASW.2015.67.2.003>
- 장승민 (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3), 1079-1100.  
<https://10.15842/kjcp.2015.34.4.010>
- 정형수 (2015). *한국형 복합비에척도 개발: 예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link?id=T13837206>
-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 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323-341.  
<https://dx.doi.org/10.15703/kjc.14.1.201302.323>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학지사.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스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대처양식의 유연성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23-143.  
<https://accesson.kr/healthpsy/v.6/2/123/27376>
- 황정윤, 김미옥, 천성문 (2014). 성인용 애도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21(2), 537-560.  
<https://www.riss.kr/link?id=A10404140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 DSM-5-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driessen, K., Hadzi-Pavlovic, D., Draper, B., Dudley, M., & Mitchell, P. B. (2018). The adolescent grief inventory: Development of a novel grief measure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0(1), 203-211.  
<https://doi.org/10.1016/j.jad.2018.07.012>
- Balk D. (1996). Models for understanding adolescent coping with bereavement. *Death Studies*, 20(4), 367-387.  
<https://doi.org/10.1080/07481189608252788>
- Balk, D. (2011). Adolescent development and

- bereavement: An introduction. *The Prevention Researcher*, 18(3), 3-10.  
<https://link.gale.com/apps/doc/A273786623/AONE?u=anon~e04ba30e&sid=googleScholar&xid=f060c805>
- Boals, A. & Schuettler, D. (2011). A double-edged sword: Event centrality, PTSD, and posttraumatic growth.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5), 817-822.  
<https://doi.org/10.1002/acp.1753>
- Boelen, P. A., Stroebe, M. S., Schut, H. A., & Zijerveld, A. M. (2006). Continuing bonds and grief: A prospective analysis. *Death Studies*, 30(8), 767-776.  
<https://doi.org/10.1080/07481180600852936>
- Bonannon,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https://doi.org/10.1037/1942-9681.59.1.101>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vol. 3).
- Brent, A. D. & Melhem, N. M. (2012).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bereavement on adolescent development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1(6), 778-791.  
<https://doi.org/10.1080/15374416.2012.717871>
- Brewer, J. & Sparkes, A. C. (2011). Parentally bereaved children and posttraumatic growth: Insights from an ethnographic study of a UK childhood bereavement service. *Mortality*, 16(3), 204-222.  
<https://doi.org/10.1080/13576275.2011.586164>
- Caserta, M. S., & Lund, D. A. (2007).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of Daily Widowed Life: Guided by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Death Studies*, 31(6), 505-535.  
<https://doi.org/10.1080/07481180701356761>
- Christ, G. H., Siegel, K., & Christ, A. E. (2002). Adolescent grief: It never really hit me... until it actually happened. *Jama*, 288(10), 1269-1278.  
<https://doi.org/10.1001/jama.288.10.1269>
- Cohen, J. A., Mannarino, A. P., AND Staron, V. R. (2006). A pilot study of modifi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hildhood traumatic grief (CBT-CT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5(12), 1465-1473.  
<https://doi.org/10.1097/01.chi.0000237705.43260.2c>
- Crunk, A. E., Burke, L. A., Neimeyer, R. A., Robinson, E. H. M., & Bai, H. (2021). The coping assessment for bereavement and loss experiences (CAB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Death Studies*, 45(9), 677-691.  
<https://doi.org/10.1080/07481187.2019.1676323>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Currier, J. M., Holland, J. M., & Neimeyer, R. A. (2012). Prolonged grief symptoms and growth in the first 2 years of bereavement: Evidence for a nonlinear association. *Traumatology*, 18(4), 65-71.

- <https://doi.org/10.1177/1534765612438948>  
Devita-Raeburn, E. (2004). *The empty room: surviving the loss of a brother or sister at any age*. New York: Scribner.
- Eisma, M. C., Lenferink, L. I. M., Stroebe, M. S., Boelen, P. A., & Schut, H. A. W. (2019). No pain, no gain: cross-lagged analyses of posttraumatic growth and anxiety, depression, posttraumatic stress and prolonged grief symptoms after loss. *Anxiety, Stress, & Coping*, 32(3), 231-243.  
<https://doi.org/10.1080/10615806.2019.1584293>
- Farella Guzzo, M., & Gobbi, G. (2023). Parental death during adolesc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Death and Dying*, 87(4), 1207-1237.  
<https://doi.org/10.1177/00302228211033661>
- Field, N. P., & Filanosky, C. (2010). Continuing bonds, risk factors for complicated grief, and adjustment to bereavement. *Death Studies*, 34(1), 1-29.  
<https://doi.org/10.1080/07481180903372269>
- Field, N. P., Gal-Oz, E., & Bonanno, G. A. (2003). Continuing bonds and adjustment at 5 years after the death of a spo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1), 110-117.  
<https://doi.org/10.1037/0022-006X.71.1.110>
- Freeman, S. J. (2005). *Grief and Loss: Understanding the Journey*. Thomson Brooks Cole.
- Grillies, J. M. (2005). *Meaning reconstruction in response to bereavement: Constructing a measure*. The University of Memphis.
- Gillies, J. M., & Neimeyer, R. A. (2006). Loss, grief, and the search for significance: toward a model of meaning reconstruction in bereavement.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9(1), 31-65.  
<https://doi.org/10.1080/10720530500311182>
- Gray, L. B., Weller, R. A., Fristad, M., & Weller, E. B. (2011).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wo months after the death of a par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5(1-3), 277-283.  
<https://doi.org/10.1016/j.jad.2011.08.009>
- Hansen, D. M., Sheehan, D. K., Stephenson, P. S., & Mayo, M. M. (2016). Parental relationships beyond the grave: Adolescents' descriptions of continued bonds. *Palliative & Supportive Care*, 14(3), 358-363.  
<https://doi.org/10.1017/S1478951515001078>
- Harrison, L. & Harrington, R. (2001). Adolescent bereavement experiences. Prevalence, association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use of services. *Journal of Adolescence*, 24(2), 159-169.  
<https://doi.org/10.1006/jado.2001.0379>
- Hayes, S. C. (2004).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relational frame theory, and the third wave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Behavior Therapy*, 35(4), 639-665.  
[https://doi.org/10.1016/S0005-7894\(04\)80013-3](https://doi.org/10.1016/S0005-7894(04)80013-3)
- Hill, R. M., Kaplow, J. B., Oosterhoff, B., & Layne, C. M. (2019). Understanding grief reactions, thwarted belongingness, and suicide ideation in bereaved adolescents: Toward a unifying theor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5(4), 780-793.  
<https://doi.org/10.1002/jclp.22731>
- Hirooka, K., Fukahori, H., Ozawa, M., & Akita, Y. (2017). Differences in posttraumatic growth



- and grief reactions among adolescents by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3(4), 955-965.  
<https://doi.org/10.1111/jan.13196>
- Hogan, N. S., & Greenfield, D. B. (1991). Adolescent sibling bereavement symptomatology in a large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1), 97-112.  
<https://doi.org/10.1177/074355489161008>
- Hogan, N. S. & Schmidt, L. A. (2002). Testing the grief for personal growth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eath Studies*, 26(8), 615-634.  
<https://doi.org/10.1080/07481180290088338>
- Holland, J. M., Currier, J. M., Coleman, R. A., & Neimeyer, R. A. (2010). The Integration of Stressful Life Experiences Scale (ISLE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new mea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7(4), 325-352.  
<https://doi.org/10.1037/a002089>
- Kaplow, J. B., Layne, C., Oosterhoff, B., Goldenthal, H., Howell, K., Wamser-Nanney, R., & Pynoos, R. (2018). Validation of the Persistent Complex Bereavement Disorder (PCBD) Checklist: A developmentally informed assessment tool for bereaved youth.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2), 244-254.  
<https://doi.org/10.1002/jts.22277>
- Kaplow, J. B., Saunders, J., Angold, A., & Costello, E. J. (2010). Psychiatric symptoms in bereaved versus non-bereaved youth and young adults: A longitudinal epidemiologica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9(11), 1145-1154.  
<https://doi.org/10.1016/j.jaac.2010.08.004>
- Keyes, K. M., Pratt, C., Galea, S., McLaughlin, K. A., Koenen, K. C., & Shear, M. K. (2014). The burden of loss: unexpected death of a loved one and psychiatric disorders across the life course in a na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1(8), 864-871.  
<https://doi.org/10.1176/appi.ajp.2014.13081132>
- Klass, D. P., Silverman, R., & Nickman, S. L. (1996). *Continuing bonds: new understandings of grief*. Taylor and Francis: Washington DC.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n, K. K., Sandler, I., Ayers, T. S. Sharlene, A. W., Wolchik, S. A., & Luecken, L. J. (2004). Resilience in parentally bereaved children and adolescents seeking preventive service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4), 673-683.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304\\_3](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304_3)
- Lipp, N. S., & O'Brien K. M. (2022). Bereaved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coping style, continuing bonds, and social media use as predictors of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Death and Dying*, 85(1), 178-203.  
<https://doi.org/10.1177/0030222820941952>
- Lister, S., Pushkar, D., & Connolly, K. (2008). Current bereavement theory: Implications for art therapy practice. *The Arts in Psychotherapy*, 35(4), 245-250.  
<https://doi.org/10.1016/j.aip.2008.06.006>
- Luecken, L., & Roubinov, D. S. (2012). Pathways to lifespan health following childhood parental

- death.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6(3), 243-257.  
<https://doi.org/10.1111/j.1751-9004.2011.00422.x>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m,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h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https://doi.org/10.1111/1467-8624.00164>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27>
- Meichenbaum, D. & Myers, J. (2016). Strategies for coping with grief. In A. R. Neimeyer (Ed.) *Techniques of Grief Therapy: Assessment and Intervention*(pp. 117-123). Routledge: NY.
- Meij L. W. D., Stroebe M., Schut H., Stroebe W., Van Den Bout J., Heijden P. G., & Dijkstra I. (2008). Parents grieving the loss of their child: Interdependence in coping.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1), 31-42.  
<https://doi.org/10.1348/014466507X216152>
- Melhem, N. M., Porta, G., Shamseddeen, W., Payne, M. W., & Brent, D. A. (2011). Grief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reaved by sudden parental dea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8(9), 911-919.  
<https://doi.org/10.1001/archgenpsychiatry.2011.101>
- Michael, C. & Cooper, M. (2013).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bereavement: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Counseling Psychology Review*, 28(4), 18-33.  
<https://psycnet.apa.org/record/2016-07362-003>
- Moor, N., & de Graaf, P. M. (2016). Temporary and Long-Term Consequences of Bereavement o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3), 913-936.  
<https://doi.org/10.1007/s10902-015-9624-x>
- Neimeyer, R. A. (1998). *The Lessons of loss: A guide to coping*. New York: McGraw-Hill.
- Neimeyer, R. A. (2000).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meaning: grief therapy and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Death Studies*, 24(6), 541-558.  
<https://doi.org/10.1080/07481180050121480>
- Nickerson, A., Bryant, R. A., Aderka, I. M., Hinton, D. E., & Hofman, S. G. (2011). The impacts of parental loss and adverse parenting on mental health: Finding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Replication.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2), 119-127.  
<https://doi.org/10.1037/a0025695>
- Packman, W., Horsley, H., Davies, B., & Kramer, R. (2006). Sibling bereavement and continuing bonds. *Death Studies*, 30(9), 817-841.  
<https://doi.org/10.1080/07481180600886603>
- Prigerson, H. G., Boelen, P. A., Xu, J., Smith, K. V., & Maciejewski, P. K. (2021). Validation of the new DSM-5-TR criteria for prolonged grief disorder and the PG-13-Revised(PG-13-R) scale. *World Psychiatry*, 20(1), 96-106.  
<https://doi.org/10.1002/wps.20823>
- Prigerson, H. G., Horowitz, M. J., Jacobs, S. C., Parkes, C. M., Aslan, M., Goodkin, K., & Bonanno, G. (2009). Prolonged grief disorder: Psychometric validation of criteria proposed for DSM-V and ICD-11. *PLoS Medicine*, 6(8), Article e1000121.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121>
- Prigerson, H. G., Vanderwerker, L. C., &

- Maciejewski, P. K. (2008). A case for inclusion of Prolonged Grief Disorder in DSM-V. In M. S. Stroebe, R.O. Hansson, H. Schut, & W. Stroebe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Intervention*(pp. 165-18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bin, L., & Omar, H. A. (2014). Adolescent bereavement. In J Merrick, A Tenenbaum, & H A. Omar (Eds.). *School, Adolescence, and Health Issues*(pp. 97-108). Nova Science Publishers.  
<http://uknowledge.uky.edu/pediatricsfacpub/121>
- Root, B. L. & Exline, J. J. (2014). The role of continuing bonds in coping with grief: overview and future directions. *Death Studies*, 38(1), 1-8.  
<https://doi.org/10.1080/07481187.2012.712608>
- Rubin, S. S., Bar-Nadav, O., & Malkinson, R. (2013). *The Two-Track Model of Bereavement Questionnaire 2-Complicated Grief 31 (TTBQ2-CG31)*. Available online a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Loss, Bereavement and Human Resilience, University of Haifa, Israel.
- Schoen, A. A., Burgoyne, M., & Shoen, S. F. (2004). Are the developmental needs of children in america adequately addressed during the grief process?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1(2), 143-150.  
<https://search.ebscohost.com/login.aspx?direct=true&db=asn&AN=13719052&lang=ko&site=ehost-live>
- Servaty-Seib, H. L., & Hayslip Jr, B. (2003). Post-loss adjustment and funeral perceptions of parentally bereaved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Death and Dying*, 46(3), 251-261.  
<https://doi.org/10.2190/UN6Q-MKBH-X079-FP42>
- Silverman, P. R., Klass, D., & Nickman, S. L. (Eds.). (1996). *Continuing bonds: New understandings of grief*. London: Taylor and Francis group.
- Spuij, M., Dekovic, M., & Boelen, P. A. (2015). An open trial of ‘Grief Help’: A cognitive-behavioural treatment for prolonged grief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2(2), 185-192.  
<https://doi.org/10.1002/cpp.1877>
- Stoppelbein, L., & Greening, L. (2000).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parentally bereav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9), 1112-1119.  
<https://doi.org/10.1097/00004583-200009000-00010>
- Stroebe, M. & Schut,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https://doi.org/10.1080/074811899201046>
- Stroebe, M. & Schut, H. (2005). To continue or relinquish bonds? A review of consequences for the bereaved. *Death Studies*, 29(6), 477-494.  
<https://doi.org/10.1080/07481180590962659>
- Stroebe, M. & Schut, H. (2010).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A decade on. *Journal of Death and Dying*, 61(4), 273-289.  
<https://doi.org/10.2190/OM.61.4.b>

- Stroebe, M., Schut, H., & Boerner, K. (2010). Continuing bonds in adaptation to bereavement: Towar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59-268.  
<https://doi.org/10.1016/j.cpr.2009.11.007>
- Stroebe, M., Schut, H., & Stroebe, W. (2007). Health outcomes of bereavement. *The Lancet, 370*(9603), 1960-1973.  
[https://doi.org/10.1016/S0140-6736\(07\)61816-9](https://doi.org/10.1016/S0140-6736(07)61816-9)
- Sussillo, M. (2005). Beyond the grave-adolescent parental loss. Letting go and holding on. *Psychoannual Dialogues, 15*(4), 499-527.  
<https://doi.org/10.1080/10481881509348846>
- Taku, K.,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08). The factor structure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A comparison of five model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2), 158-164.  
<http://doi.org/10.1002/jts.20305>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https://doi.org/10.1007/BF02103658>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1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1](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1)
- Wolchik, S. A., Tein, J., Sandler, I. N., & Ayer, T. S. (2006). Stressors, quality of the child-caregiver relationship, and children's mental health problems after parental death: The mediating role of self-system belief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212-229.  
<https://doi.org/10.1007/s10802-005-9016-5>
- Worden, J. W. (1991).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New York: Springer.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626-653.  
<https://doi.org/10.1016/j.cpr.2006.01.008>
- 원고접수일 : 2023. 10.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3. 12. 21.  
게재확정일 : 2023. 12. 26.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ereavement Coping Scale for Adolescents\*

Jieun Kwon<sup>1)</sup>

Sungeun You<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h.D.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Bereavement Coping Scale for Adolescents based on the dual process model(Strobe & Schut, 2010).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open-ended surveys, and self-report surveys from people who experienced bereavement during adolescence. Preliminary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dual process model,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open-ended survey data. Subsequently,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yielded a scale consisting of three factors: acceptance of bereavement, rebuilding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and positive perspective, totaling 17 items. Acceptance of bereavement involves acknowledging and accepting the bereavement, rebuilding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reflects efforts to maintain a psychological connection with the deceased, and positive perspective encompasses a positive attitude and emotion toward the future and oneself.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building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factor corresponds to loss-oriented coping, while the positive perspective factor aligns with restoration-oriented coping in the dual process model. On the other hand, the acceptance of bereavement factor includes items corresponding to both loss-oriented and restoration-oriented coping. The scale 's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were satisfactory, and its convergent, predictive, and incremental validity were confirmed. In conclusion, the Bereavement Coping Scale for Adolescents is suitable for assessing coping mechanisms following bereavement during adolescence.

*Key words* : adolescent bereavement, bereavement coping scale, dual process model

---

\*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the par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s a poster at the 10th World Congress of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 (WCCBT 2023).

1) J. Kwon is currently a postdoctoral researcher in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Keimyung University.

2)†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You /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28644)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Cheongju, Chungcheongbuk-do, Korea / E-mail: syou@chungbuk.ac.kr